

제2017-13호

2019년 여름 소식

GORYO NEWSPAPER

사랑하는 아들 대웅에게!

엄마 간호하라, 일하라 바쁘겠구나! 만물의 영장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단다. 그리고 誠實(성실)보다 더 큰 재산은 없단다. 부단히 노력하고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면 이 세상에 어려울 것이 없단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사랑이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했단다.

사랑은 "관심", 사랑은 "이해", 사랑은 "믿는 것", 사랑은 "주는 것", 사랑은 "즐거하는 것",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다.

사랑의 결론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다.

부지런한 사람이 되자!

지극히 즐거움은 책을 읽는 것만 같음이 없고 지극히 필요한 것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 같음이 없느니라. 아버지는 아무리 장사가 힘들어도 고학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

아들아! 아버지는 이 병원에서 엄마를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기도한단다. 아버지는 이 병원에서 제일 부지런하단다. 태공이 말하기를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더 없이 귀중한 것이 될 것이요. 정성스럽게 하는 것은 이 몸을 보호하는 부적이 될 것이다."라고 했단다.

인간은 누구나 성공을 원한다. 가장 성공한 자는 자신을 이긴 자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밝게 웃고, 열심히 일하고, 절제하고, 건강을 지키며 살자!

2019. 04. 25.

- 고려달전요양병원 313호에서 김*식





봄을 알리는 고려달전요양병원의 식사시간



3월



냉이

제공된 요리 : 냉이된장국

냉이는 비타민A가 많아 **눈 건강**에 좋고, 특히 **피로 해소**에 좋아 맑게 된장을 풀어 제공하였습니다. 냉이가 질겨지거나 커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봄동

제공된 요리 : 봄동무침

비타민 C와 칼슘이 듬뿍 들어 있을 뿐 아니라 **침의 분비**를 도와 소화를 돕습니다. 입이 말라 불편함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에게 적합하여 새콤달콤하게 무쳐 제공하였습니다.

4월



취나물

제공된 요리 : 취나물 무침

감기, 두통, 진통에 효과가 있어 한약재로도 이용된다 하는 취나물은 어르신들이 유년시절부터 즐겨하던 음식이라 기호가 높습니다. 잘게 잘라 어르신들 연하에 곤란이 없게 노력했습니다.



미나리

제공된 요리 : 낙지 미나리 연포탕

비타민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병원의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낙지 미나리 연포탕은 시원하고 맑아 인기가 좋습니다.

5월



도라지

제공된 요리 : 도라지 오이무침

기침, 가래 등 **기관지**에 좋습니다. **면역 강화, 골다공증 예방, 빈혈 및 항산화 작용**도 뛰어납니다. 도라지가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게 얇게 썰었고 오이의 비중도 높여 촉촉하게 했습니다.



고사리

제공된 요리 : 고사리나물

열을 내려주고 면역력증진에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치아나 뼈, 근육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폭신하게 익혀 부드럽게 제공된 고사리나물은 잔반 없이 인기가 좋습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최근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건의료종사자용과 환자 및 보호자용으로 나누어 의료기관에 배포하였다. 그 중 환자 및 보호자용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은 환자 안전과 직결됩니다.

- 진료는 국민의 건강권 및 생명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진료공간이 안전해야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으며, 모든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 또한 안전해야 환자의 건강을 돌보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2. 진료공간 안전은 모두의 노력으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 및 진료절차를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 다른 환자와 보호자,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진료와 관계없는 위험한 물건(칼, 송곳 등)의 의료기관 반입을 금지합니다.

3.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은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 의료법 제15조에 의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 그러나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같은 범죄행위, 의학적 사유에 따른 전원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 환자와 보호자는 상기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진료요구를 하는 것은 다른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4. 폭력유형

- 언어폭력 : 폭언, 욕설/ 고성/협박
- 신체적 폭력 및 기타 위해 :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 및 폭행, 물건 집어던짐, 진료실 난입, 기물파손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2019년 고려달전요양병원 어버이날 행사



2019년 5월 8일 어버이날 을 맞이하여 "고려달전요양병원"에서는 그동안 함께 지내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어버이날 행사"를 하였습니다.

격동의 시대를 잘 이끌어주신 우리 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 시대에는 배고픔을 느꼈고 6.25동란이란 큰 시대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많은 자녀들과 시부모님을 모시고 힘든 생활을 하셨을 어르신 !!! 우리가 늘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올 해도 건강하시고 내년까지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이어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려달전요양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학생봉사 동아리 활동



지역사회 학생들의 봉사 동아리 활동이 고려달전요양병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동고등학교 봉사동아리가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손톱메니큐어 칠하기, 그림그리기, 손 편지 써 드리기, 손 및 어깨 마사지 등의 재능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활기로 가득 찬 학생들을 보며 어르신들의 활력이 증진되었고 심신의 안녕을 도모하였습니다. 손주 같은 학생들이 말벗이 되어드렸으며 손을 잡아드리는 등의 직접 다가가는 활동을 함으로 더욱 친근하여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봉사를 하러 온 학생들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려달전요양병원!!



몇 달간 고려달전요양병원 월보가 만나와서, 궁금했는데~~~ 오늘 드디어 보니 친구를 만난 듯이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려월보는 다양한 소식과 좋은 정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월보에 나와 있는 권순태 한방 원장님, 잘생긴 모습과 또 장가를 가야 할텐데~~ 웃음치료 사진에 아는 얼굴들의 모습과 이런저런 소식이 넘 좋습니다. 미안마에 다녀오신 원장님, 우리는 못하는 일을 원장님이 다녀오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저런 소식이 넘 고맙고 다음 달이 기다려집니다.

- 고려달전요양병원 209호 김*자

고려달전요양병원에서 알려드리는 오십견의 원인과 치료방안



오십견은 50살에 걸리는 어깨의 병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 발병하는 연령대는 3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동결견이라고도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유착성관절낭염'입니다. 어깨 관절을 둘러싼 관절낭, 인대, 근육에 염증이 생겨 굳어지고 이로 인해 통증과 운동장애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오십견에서 나타나는 어깨 통증과 운동장애는 여러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보통 환자는 팔을 위로 들거나 뒤로 돌릴 때 심한 통증을 느끼며 움직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수를 한다거나 머리를 감을 때, 또는 옷을 벗을 때 힘들다는 호소도 자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는, 3기로 증상을 나누게 됩니다. 1기는 발생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으로 통증이 점차 증가하여 움직이지 않을 때도 이를 호소하며 혼자 어깨를 움직이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도와줄 때는 아프기는 해도 움직이는 것은 원래대로 가능합니다. 2기는 3개월에서 1년까지의 기간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의 통증은 감소하는 대신 만성화되며, 도움을 받더라도 관절의 운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3기는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통증이 많이 감소하고 어깨의 운동 범위도 회복되어 혼자 움직이는 것도 편해지지만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통증이나 운동장애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히 치유되나 완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려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므로 가급적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십견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깨 관절 내부에서 생기는 회전근개파열, 석회화건염, 골절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가까운 경추와 흉부의 내외상, 또는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에 수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다른 원인 없이도 관절낭에 염증과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소위 특발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인으로 열거했던 어깨 질환들이 거꾸로 오십견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원인을 어혈, 풍한습, 담음, 기혈부족으로 크게 분류합니다. 어혈은 외상 또는 과도한 관절 사용으로 인한 손상을 뜻하며, 풍한습은 추위에 노출되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긴 결과 관절낭이 굳어진 것, 담음은 소위 담 결린 것으로 관절에 노폐물이 축적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것, 기혈부족은 나이가 들어 생기는 퇴행성 변화를 뜻합니다.

한의학적 치료는 어깨 주위의 견정, 견우, 견료, 거골, 극천, 노수 등의 혈자리와 함께 이곳을 지나는 경락인 수소양삼초경, 수태양소장경, 수양명대장경이 시작하는 부위인 손의 관충, 후계, 합곡 등을 침으로 자극하여 조직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노폐물의 제거와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촉진시킵니다. 여기에 조직의 온도를 높여 주는 뜸 치료, 뭉친 근육을 음압으로 이완시켜 주는 부항 치료, 조직에 직접 약침을 주사하거나 원인에 맞춰 처방된 한약을 내복하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침 치료의 효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어깨를 스트레칭해 주면 치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쪽 팔을 반대쪽으로 뻗치고 반대쪽 팔을 받쳐 십자 모양을 만들고 눌러서 어깨 관절을 늘려 주는 것과, 양 팔을 펼쳐 팔꿈치를 굽히고 천천히 어깨를 앞뒤로 회전시키는 스트레칭이 대표적입니다. 침 치료 부위인 어깨선 주위를 지압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 요양병원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일반 보호자분들이 우리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기 위해 상담을 받으실 때 한번쯤은 안내를 받으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 고려일보를 통해 재차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본인부담”이라는 말은 병원에서 진료 후에 계산된 전체 진료비 중 환자 본인이 납부해야 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연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가 부담한 총 본인부담액이 연도별(1.1 ~ 12.31) 상한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간병료, 기저귀,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고 의료급여(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기준표>

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2~3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20미만	81만원	101만원	101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120초과	125만원	157만원	157만원				

상한제 기준은 가입자의 소득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분위로 산정하여 본인부담상한 금액이 높아져 올해 기준 580만원이 최대 상한 금액이 되며,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하는 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 분위를 알고 싶으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살펴보면 6~7분위에 해당이 되고 우리요양병원에 납부한 요양비가 400만원일 경우 해당기준액 280만원의 차액 12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음년도 7~8월경에 환급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첫째,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둘째, 적용기간은 연도별(1.1 ~ 12.31)로 책정됩니다. 셋째, 산정 시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넷째, 환급기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하는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섯째, 환급금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7~8월 경 환급이 됩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원무과로 문의해주세요.



고려대련요양병원에서 노래교실 프로그램



심이 있으신 환우분들이 병원강당에 모여 포항에서 유명하신 노래교실 선생님과 함께 노래교실 수업을 함께 하였습니다.

고려대련요양병원에서는 5월 3일 전 병동 환우분들과 함께 하는 노래교실을 열었습니다. 노래교실에 관

대강당에 모이신 어르신들로 인해서 열기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날은 불려서 행복한 노래 마음이 따뜻한 노래 장운정의 노래 "당신편"을 강사님께서 준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병실에서만 계시다 노래교실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같이 항상 많이 웃으시고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으면 합니다.

고려대련요양병원 재활치료센터의 물리치료

고려대련요양병원의 재활치료센터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들이 모여 매주 자체 교육 및 환자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료사들은 주기적으로 환자의 기능 및 치료과정을 분석하고 공유하며 더 나은 치료 방법을 연구합니다. 이를 통해 환우분들의 재활치료를 정성을 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려대련병원 재활센터는 환자의 기능회복과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우수한 치료사들과 최첨단 기구를 이용한 치료법을 적극 도입했습니다. 또한 운동치료, 도수치료, 통증치료, 한방과 협진치료를 통해 급성기 재활 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재활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고려대련요양병원의 재활치료팀은 환우 개개인에 맞는 치료를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환자분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고려대련요양병원 요가프로그램



문 요가강사 선생님을 모시고 고려대련요양병원 암케어센터 다목적실에서 요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요가운동을 통해 유연성 향상, 근육량 증가,

밸런스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건강운동입니다. 암투병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통증, 피로, 수면장애, 우울증과 같은 부작용의 증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암 수술 후 더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요가를 통해 현재 본인의 상태를 인정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효과적으로 요가를 배울 수 있으며, 환우들의 심신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빨리 우리 환우분의 쾌유를 바랍니다.

고려대련요양병원의 작업치료, 당신의 삶을 재설계하다

작업치료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 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하는 보건 의료의 한 전문 분야이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작업치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Occupations are all kinds of mental, physical, and social activities that are meaningful to an individual. 해석하자면 작업이란 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모든 종류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활동을 말한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웰빙을 넘어 옴로(YOLO) 열풍이 불고 있다. 옴로는 ‘인생은 한 번 뿐이다(You Only Live Once)’의 약자로 현재 행복을 중시하고 각자의 인생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자는 신조어다. 이는 넓은 의미의 작업 치료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보통 ‘작업(occupation)’이란 단어를 직업(vocation)과 관련된 일에 한정짓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작업이란 말은 작업치료의 뿌리가 되는 언어로 “의미 있는 삶을 가능하도록 하는 인간의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재활치료실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2~3개월의 대학병원 입원 기간을 거친다. 초기 면담을 위해 환자와 보호자를 만나면 재활치료인 건 알지만 각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에 대해선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다. 아무래도 작업치료라는 단어에 ‘작업’은 속된 말로 누군가를 ‘유혹하는(꼬시는)’ 중의적 의미로 쓰이면서 이와 관련된 농담을 꼬리표처럼 달고 온다. 모든 재활치료 팀의 공통된 목표는 환자가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 작업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

작업 치료에서의 ‘일상생활’은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아침에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주말엔 여가 생활을 하는 등 각자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모든 일을 말한다. 하지만 뇌졸중 및 척수 손상과 같은 중추신경계 손상을 입은 환자들은 이 같은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통해 기능을 최대한 증진시키고 개개인에게 의미 있는 활동의 수행도를 높여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훈련이다.

◆연하장애재활치료

“숨 쉬고 눈 깜빡이는 것처럼 당연했던 씹고 삼키는 게 불편해요”

연하장애란 뇌졸중으로 인해 나타나는데 짧은 시간 내에 구강부터 식도까지의 움직임이 정교하게 조절돼 음식물이 안전하게 위장까지 전달돼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장애를 말한다. 이러한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필요한 양의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게 돼 탈수증과 영양실조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흡인성 폐렴’으로 음식물이 기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도가 막혀 사망에 이르는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연하조영검사(VFSS)를 실시해 삼킴 장애의 원인을 파악하는 검사를 진행하고 연하 치료실에 선 환자의 각 삼킴 단계에서의 문제를 판단 후 개개인에 맞춰 구강운동, 저작(씹기)훈련, 전기 자극 치료, 메뉴버

(Maneuver) 등 다양한 치료법을 통해 식사가 가능하도록 돕고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Vital Stim)로 구강과 인두 근육에 자극을 줌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훈련이다.

◆인지재활치료

인지 손상이 동반이 된 환자는 운동 치료나 연하장애 치료에 있어서 학습 능력이 저하돼 치료도 비효율적이다. 아무래도 뇌손상으로 인해 개인이 사고하고 행동하기 위해 외부에서 오는 다양한 감각 정보를 처리하고 이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장애므로 주의 집중과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공간 지각 능력, 의사소통 능력,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대처하는 능력에 어려움이 많아 재활치료 전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훈련이다.

◆특수작업치료

결여된 기능과 잔존기능을 평가하여 장단기의 목표를 수립하고 손상받은 기능의 향상과 회복을 위한 환자의 신체기능, 지각기능, 인지기능, 감각 상태를 평가하여 관절움직임 범위 향상, 근력 증진, 손가락의 소근육 발달로 민첩성 증진, 균형 및 시지각 훈련을 통한 환자의 손상된 기능회복과 관련된 치료를 제공하여 전반적인 기능을 향상시켜 최대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다.



고려대련요양병원 재활치료팀
작업치료사 남 주 현

고려대련요양병원 암 재활 치료

오늘날 암 진단과 암과 관련된 치료가 발전함에 따라 암에 대한 생존율이 증가하여 암 치료 이후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과 같은 완치율이 높은 암종에서는 생존율 증가에 따른 암 및 암 치료와 관련한 증상의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고 중증 암에서의 증상 관리는 암 치료 과정에서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증암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사용증후군은 거동에 많은 제한을 주고 신체 기능의 이상을 발생시키며 폐렴, 낙상에 의한 골절 등 다른 내, 외과적 합병증을 같이 초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의 항암 및 방사선 치료로 인한 병실에서 거동이 제한되거나 폐렴 등 내과적 질환으로 인한 병상 생활에서 신체 기능의 저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치료 기관과 입원 기간을 증가시키며 퇴원 후 사회 복귀도 어렵게 합니다.

암과 암치료 과정 중 침상 안정으로 발생하는 신체 기능 문제는 근력 및 균형감 약화로 인한 낙상의 증가, 인지력의 약화, 관절구축 및 골다공증 발생으로 인한 통증과 같이 다양한 증상과 질환이 포함됩니다.

침상에서 안정을 하며 거동을 하지 못할 경우, 근육 소실은 주마다 1%~30%, 한달 내 50%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근육 소실은 균형능력의 약화 및 피로를 초래하고 보행능력을 더욱 감소시키게 됩니다. 또한 근력 소실로 인하여 혈액 및 체액이 팔다리보다 몸통에 집중되며 감염, 심부전, 폐렴, 욕창, 요로감염, 패혈증 등의 의학적 합병증이 야기되고 이로 인하여 거동의 제한이 유발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현재까지 질병 치료 과정 중 신체 기능의 약화가 발생되거나 예방이 필요한 경우, 회복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이

라고 보고된 행위는 재활치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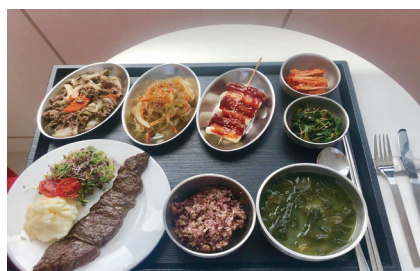
뇌졸중 및 척수 손상과 같은 중추 신경계 질환 환자의 경우 재활 치료 기준과 항목이 있어 환자의 신체 기능 장애를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암 환자의 신체 기능 장애의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는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암 환자들의 재활을 위해 고려대련요양병원에서는 환자 특성에 맞게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및 운동치료를 시행하여 항암을 위한 기본적 체력 증진과 신체의 기능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암 재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려대련요양병원 재활치료팀
재활센터장 **한복수**

고려대련 암케어센터 음식



저희 고려대련요양병원에서는 고주파온열치료기, 고압산소치료기, 전신온열치료기, 통증치료기, 편백나무 족욕실, 재활치료실등 활성화된 암케어 시설에 알맞도록 암 환우 분들에게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 환자 분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암 식단으로 구성하여

환우 분들이 믿고 드실 수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29일 중식에는 이사장님께서 손수 만들어 오신 함박 스테이크를 제공하여 환우 분들께서 아주 맛있게 드셨습니다.

또한 한주에 한 번씩은 식단의 지루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일품요리를 제

공하고 환우 분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또 한번의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고려대련요양병원은 앞으로도 메뉴개발 및 항암식단을 연구하여 암 환우분들의 만족스러운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 어떻게 치료받을 것인가?

2016년 국가암등록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암 유병자 수는 총 174만 명이며, 이중 절반 이상(52.7%)이 암 진단 후 5년 넘게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10년 전에 비해 1.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에 달합니다. 남자(기대수명 79세)는 5명 중 2명(38.3%), 여자(기대수명 85세)는 3명 중 1명(33.3%)꼴로 암에 걸린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가족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진료실에서 암 환자를 보다보면, 많은 암 환자분들이 대학병원에서 정말 묻고 싶은 것을 묻지 못하고 또, 듣고 싶은 것을 듣지 못했다는 불평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진료 시스템의 특성상 환자와 의사가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진료 시스템은 “30분대기, 3분 진료”라는 말처럼 환자와 의사의 소통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암치료는 환자와 의사의 명확하고 확실한 의사소통에서 출발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암 환자분들이 자신의 병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암을 어떻게 치료받을 것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저는 먼저 암 환자분들이 “본인의 병기가 어떤지를 알고 항암치료와 건강한 식이요법으로 점진적으로 치료 받아야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기에서 4기 가운데,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의 병기에 맞게 5년 생존율과 같은 예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

한, 자신이 받고 있는 치료가 정말 암을 완치할 수 있는 치료인지 아니면 수명연장을 위한 치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치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그에 맞는 치료법을 인지하고 있기에 의사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는 심리적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실에서 암 환자를 대면할 경우,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은 본인의 병에 대한 정확한 인식보다는, 본인이 암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거나 절망하는 등 극심한 고통 속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은 면역력만 높이면 누구나 나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면역력을 높이면 암이 자연 치유되기 쉬운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암 환자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쉽게 면역력이 올라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들이 암 환자들에게 희망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암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무책임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치료만 받으면 100%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보다 이성적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각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치료와 좋은 음식, 적절한 생활로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암은 위축되어 결국 완치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스러운 항암, 방사선 치료의 과정에서 고통을 현저하게 줄이고 암 진단 받기 전과 동일한 삶의 질을 유지하며 점차 건강을 회복시켜가는 것이 암 치료의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치료를 하다보면 대학병원의 치료법을 단독으로 받는 것 보다는

현저하게 치료 결과가 좋은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암 세포를 죽이기 위해 나의 몸까지 죽이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암이든, 중기 혹은 말기 암이든 희망을 버리지 말고 완치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항암, 방사선치료의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점차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암세포를 제압하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암은 친구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워낙 성격이 괴팍하고 고집이 세서 오랜 기간에 걸쳐 천천히 사귀어야만 하는 친구, 도중에 서로 다투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지만 끝끝내 잘 이해하며 웃으며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친구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잘 사귀어서 이해하고 친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암을 돌려보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절망과 고통을 주는 ‘암’을 어떻게 친구로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암과 친해져야만 합니다. 그 친구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예상치 않게 내 뒤통수를 치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잘 달래고 얼러야 합니다. 암과 “웃으며 안녕”이라고 말할 때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보면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암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켰노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려대연양병원
진료과장 문덕홍

아기 새는 높은 하늘을 나는 꿈을 꾸지만 높이 날기 전 날개가 꺾일 때 누가 치료해 줄 것인가?

병원에서 간호사란?

기본적이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네요. 간호사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돕고, 24시간 환자의 곁에서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치료를 하며, 의사 부재 시에는 비상조치를 취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유지를 증진을 도와주는 직업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며 간호과를 오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간호사란 직업 자체는 안정적으로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많은 학생들이 취업과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점점 안정적인 직업을 많이 찾는데 여학생의 경우 간호과를 많이 지원하죠. 또 요즘에는 남학생 분들도 안정적인 직업으로 간호과를 많이 지원하고 있고 지금 그 수가 2천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많이 지원해도 졸업 후 간호사를 하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아요.

간호과를 나와도 간호사를 오래 유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시다시피 간호사는 기본적으로 Day, Evening, Night 3교대 근무예요. 병원마다 조금씩 시간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Day는 오전7시~오후3시, Evening이 오후2시30분~오후10시30분, Night는 오후11시~오전7시30분이예요. 다른 직장인 분들도 신입직원일 때는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데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 1시간은 일찍 출근했어요. 아무래도 의료물품 카운트부터 환자 파악까지 신입직원으로써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일이 일상다반사였어요.

기본적인 근무시간부터 환자를 대하면서 오는 감정노동, 힘든 근로시간, 당연히 요구되는 추가근무 등 간호과를 졸업한 많은 간호사들이 1년에 3~4명은 항상 그만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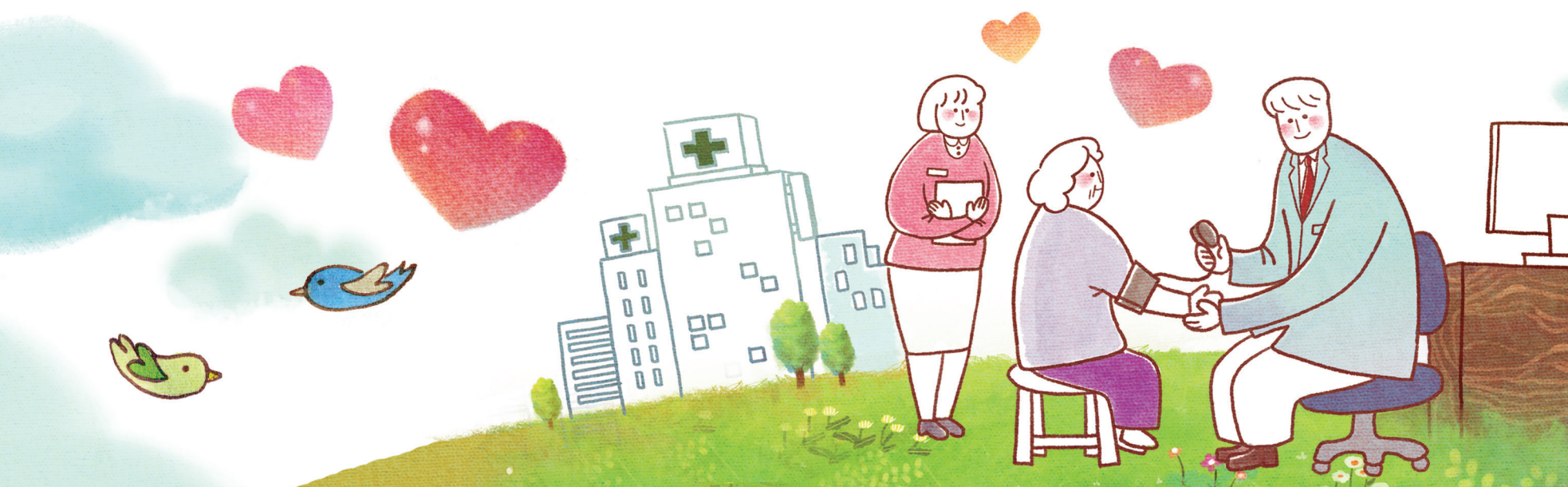
고려대련요양병원 2병동
간호팀장 김 경 모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간호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간호사가 비록 일반적인 기업보다 안정적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간호과로 오면 버티기 힘든 곳입니다. 병원에서의 생활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지는 직업이에요.

저는 간호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과 병원 관계자 분들에게 말을 전하고 싶어요. 먼저 간호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많은 학생 여러분. 간호사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간호와 관련된 사무직도 많으니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고민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간호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에 대한 괴리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분들은 간호사에 대해 좀 더 깊은 고민을 해보길 바라요.

그리고 병원 관계자분들에게 제 생각을 전하면 많은 신입 간호사들이 병원에 와서 아무도 보듬어주지 않는 현실과 힘든 업무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간호사의 어려운 상황을 조금만 이해해주시고 간호사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노동에 대한 해결책을 깊이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특집!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식품영양정보로 질병을 가진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앓고 있으며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노인의 8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지니고 있는 복합이환자가 73.0%에 달하며, 전체 노인이 평균 2.7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노년층의 증가는 의료비 지출 부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노년기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건강정보이해능력(Health Literacy)을 제시하였습니다. WHO에서 제시한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높을수록 만성질환에 대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낮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지출된 의료비용이 더 낮은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식품을 구매할 때 라벨에 쓰인 영양표시를 누구보다

열심히 봐야하는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건강한 노인보다 영양표시를 덜 확인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식품표시를 읽는 비율이 무려 80%에 달하는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이는 수치입니다.(FDA, 2014).

이와 같은 해외연구를 종합하여 저는 국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영양표시활용정도에 따른 노인의 만성질환과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7기 1차년도(2016)를 사용하여 영양정보이해정도에 따라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영양표시를 활용하지 않는 노인,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노인, 영양표시를 확인하고 활용하는 노인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연구를 진행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한 결과 영양표시 세 집단에서 모두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영양표시를 확인하고 활용하는 노인이 0.51점,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노인이 0.46점, 활용하지 않는 집단이 0.38점으로 보

다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만성질환을 보유한 노인이 영양표시를 확인하고 활용할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년학 박사과정 김수경

저의 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여성 노인이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여성노인의 경우 감정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질병이 발생되며, 남성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신의 건강에 무관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동향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서울시 성(姓)인지 통계, 2016).

제 연구를 통해 영양표시를 확인여부에 따라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노인의 일상생활능력(ADL)수준에 따라 구강건강상태와 영양에 영향을 미친다!

본 글을 작성함에 있어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 고려대연료양병원의 독자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연구 질문1. .자립적생활정도(ADL)와 건강차이에 따른 구강 건강과 영양상태와의 연관성이 있을까?

연구 질문2. 자립적생활정도(ADL)와 건강차이에 따른 집단 별 영양상태 차이가 있을까?

이러한 연구질문을 가지고 저는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년학 박사과정으로서 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구강건강 요인 가운데 씹기에 대한 보조기 사용여부는 저작능력 저하를, 저작능력의 저하는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야기하며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가 좁아져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의 건강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식품 선택과 영양 공급을 통한 예방적 건강지원방안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이며,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저하는 경제적인 문제와 무력과 우울증, 자존감의 손상을 심각하게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구강건강과 영양상태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건강차이에 따라 각각의 수준을 분류하여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의 연구에서는 노인집단을 자립적 생활정도과 건강차이에 따라 분류하여 노인의 구강건강상태와 영양상태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구를 위해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사용하였으며, 노인을 자립적 생활정도과 건강차이에 따라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고 건강한 노인과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노인, 자립적 생활이 불가능하고 건강에 대해 자녀 및 배우자 모두의 도움을 받는 노인으로 한정하여 구분하였습니다.

제 연구는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다양한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파악, 노인 특성 변화 예측에 초점을 두고 현재의 노인관련 정책 및 향후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표를 둔 전국 통계 조사 자료로서 한국 노인의 특성 및 생활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본 조사에서는 노인들이 씹기에 대한 불편함 및 구강 보조기 사용여부, 영양 상태와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고 있어 구강건강에 대한 영양의 연관성 분석을 시도하

는 연구에 활용함에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구강건강상태와 영양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세 집단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집단별로 영양상태 평균점수(10점 만점)를 비교한 결과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지만 건강에 대한 부분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1.96점, 자립적 생활이 불가능하고 건강에 대해 자녀 및 배우자의 도움을 받는 노인이 2.16점,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고 건강한 노인이 2.34점 순으로 영양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립생활이 가능하지만 만성질환과 같은 질병을 보유한 노인이 영양상태에 관한 점수가 높았다는 기존의 연구동향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강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영양 상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연구는 인구사회학적요인과 경제, 건강관련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자립 및 건강한 노인, 건강관리에 있어 자녀 및 배우자 모두의 도움을 받거나, 자립적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 모두 구강건강이 영양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입니다.



고려대련요양병원 NEWS



고려대련요양병원 PNF 학회 진행
(2019. 05. 23. ~ 27)



고려대련요양병원 포항시 약사회 헬스케어전문가
양성강좌 진행(2019. 05. 25 / 06. 15. / 06. 22)



고려대련요양병원 부산대학교 상반기 협력병원 체결식
(2019. 06. 28)



고려대련요양병원 방사선학회 진행
(2019. 06. 30.)

고려대련요양병원 진료협력병원 체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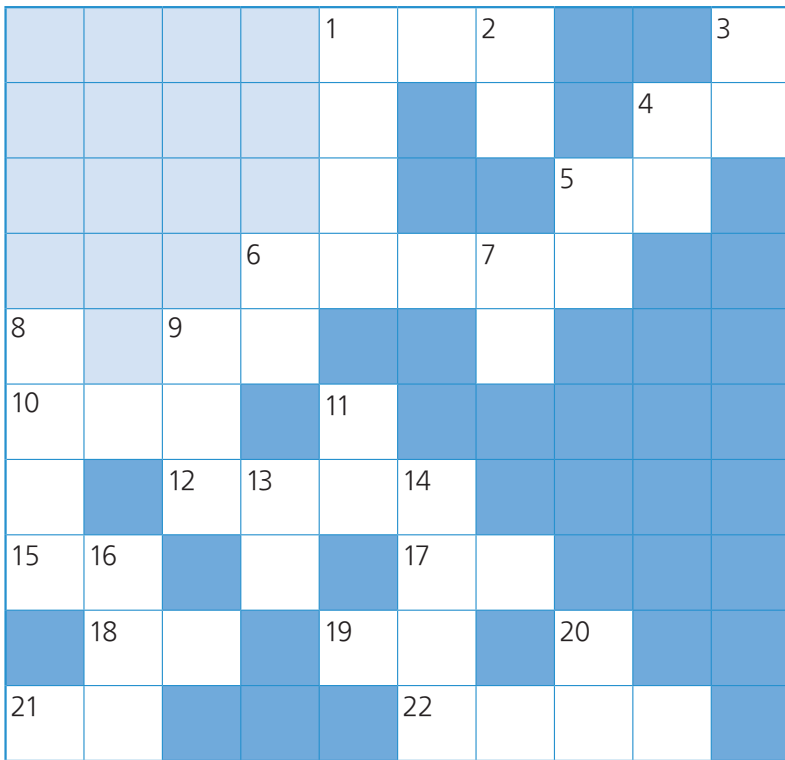
1. 강동경희대병원	6.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11.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16.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2. 건국대학교병원	7.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12. 영남대학교병원	17. 좋은선린병원
3. 경희의료원	8. 부산대학교 병원	13. 울산대학교병원	18. 중앙대학교 병원
4.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9. 서울대학교 병원	14.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19. 칠곡경북대학교병원
5.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10.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15.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	20. 포항성모병원
			21. 세명기독병원

고려대련요양병원 정기 프로그램 안내



건강요가 프로그램	강사: 최현숙 강사	국학기공	강사: 이신철 강사
	일시: 매월 수요일 11:00 / 토요일 10:00		일시: 매월 화요일 16:00
	장소: 3층 다목적실		장소: 3층 다목적실
등산	인솔자: 사회복지사	노래교실 프로그램	강사: 김진아 강사
	일시: 매월 월요일 09:30		일시: 매월 화요일 16:00
	장소: 고려대련요양병원 등산로		장소: 3층 다목적실

가로세로문제



가로 문제

1. 기업의 자산 가운데에서 법으로 정해진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 적립금·준비금·이월 이익금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이익 잉여금과 자본 잉여금으로 나뉜다. '남은 금액', '남은 돈'으로 순화
4. '건축 용재'를 줄여 이르는 말
5. 기본이 되는 표준
6. '소시민'과 같은 말
9. 뼈가 혈 만큼 들이는 품
10. 양쪽 선단이 없이 통으로 지은 치마. 생활한복 치마나 양장 치마의 대부분이 이것에 해당한다
12. 편형동물문 흡충류 가운데 크로노르키스속(Clonorchis屬)의 종을 통틀어 이르는 말. 몸의 길이는 3~10mm이며 앞사귀, 원통, 원반 모양이다. 몸의 앞 끝과 배에 빨판이 있으며, 중간 숙주를 필요로 한다. 포유류의 간과 폐에 기생하여 흡충증을 일으킨다
15. 옥의 빛깔과 같은 흐린 초록색
17. '이씨 조선'을 줄여 이르는 말
18. '채장'(債帳)과 같은 말
19. '영동'(嶺東)과 같은 말
21. '감촉'(感觸)과 같은 말
22. '지관'(地官)을 속되게 이르는 말

세로 문제

1. 다정하고 금실이 좋은 부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원앙 부부'로 순화
2. 금의 값
3. '산업 재해'를 줄여 이르는 말
4.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줄여 이르는 말
5. '굶주림'과 같은 말
6. '소품물'과 같은 말
7. '수판'(數板)과 같은 말
8. 차량과 사람으로 길거리가 몹시 붐비어 교통 기관을 이용하기가 지극히 곤란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 '관절'(關節)과 같은 말
11. '전장'(田莊)과 같은 말
13. '똑딱단추'와 같은 말
14.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
20. 정치에서의 싸움. 또는 정계의 투쟁
16. 색채가 잘 조화되거나 못 된 것에 대한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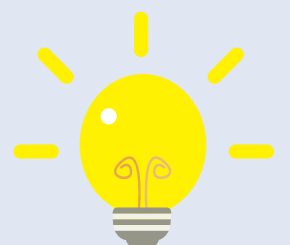
틀린그림 찾기



정답
확인

장소 : 고려대련요양병원 로비층 언어치료실
담당 : 기획홍보팀 황성조 주임

* 가로세로문제 혹은 틀린그림 찾기의
정답을 모두 맞히신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고려달전요양병원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로 189 / Tel : 054-262-2022

포털 검색창에 **고려요양병원** 을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 : <http://www.goryeoh.com>

블 로 그 : <http://blog.naver.com/goryoscs>

고려대련요양병원(외래진료 가능)



재활센터, 암케어센터, 외상케어센터, 한방클리닉 운영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318-12 / Tel : 054-241-1011

포털 검색창에 **고려대련요양병원** 을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 : <http://www.goryomcc.com>

블 로 그 : <http://blog.naver.com/goryomcc>